

포천사회 知識人 ④8

대진대학교 한 인 희 교수

포천시 청소년 中國문화 體驗 프로그램 운영 가능

대진대 중국캠퍼스는 국제화시대 專門인력 양성 기회 제공

“삼성은 지난 18년 동안 지역전문가 제도를 도입해 75개국에서 3천500여명의 지역전문가를 양성했다. 1인당 1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6개월은 교육을 받고 6개월은 현장답사를 실시한 후 1년 동안의 활동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에서 일본전자제품을 몰아내고 삼성 전자제품을 판매하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지역전문가 덕이다. 삼성이 길러낸 중국 전문가만 해도 680여명이나 된다. 대진대학교가 중국캠퍼스를 운영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재학생중 1천700여명이 중국을 체험하고 있다. 그러나 효과는 단기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



대진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중국학과 한인희(52·사진) 교수는 대진대학교의 중국캠퍼스 운영의 비전을 이렇게 밝히고 있다. 한 교수는 경북 봉화군에서 태어나 몰아초등학교, 춘천제일중·고등학교,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박사 과정을 마치고 타이완 중국문화대학교 대학원 삼민주의연구소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대진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중국학과 한인희(52·사진) 교수는 대진대학교의 중국캠퍼스 운영의 비전을 이렇게 밝히고 있다. 한 교수는 경북 봉화군에서 태어나 몰아초등학교, 춘천제일중·고등학교,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박사 과정을 마치고 타이완 중국문화대학교 대학원 삼민주의연구소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건국대학교 정외과 강사, 건국대학교 중국문제연구소 간사장, 대진대학교 대외협력처장으로 활동해온 한 교수의 주 연구분야는 중국정치이며 세부연구분야는 중국정치사로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한국정치학회, 한국중국문화학회, 중국학연구회, 한국중앙정치사상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에 소속돼 활동하고 있다.

현재 대진대학교에서는 중국학과 학과장으로 중국정치론, 현대중국의 이해, 중국통사, 중국외교정책론, 양관관계론, 이문화교류학, 중국지도자론 등의 과목을 교육하고 있다. 전공과 관련하여 한 교수가 포천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일은 포천시 명예외교관으로서 중국관련 업무에 자문역할을 하고 있다. 한 교수는 전공과 관련하여 포천시민들에게 중국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중국에는 고급문화와 저급문화가 있다. 고급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노자 도덕경 제8장에 나오는 ‘上善若水’(최고의 선은 물 흐름과 같다)를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한 교수는 1996년 대진대학교 중국학과를 설립할 때 부임했으며 학생들에

고급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큰 교육효과가 기대되며 포천시 청소년들의 안목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다음은 한 교수가 그동안 발표한 논문 및 저서목록이다.

- 국내학회지 게재논문 ▶ 중국 정치에 있어서 ‘상하이방’의 존재와 역할, 『중국학연구』(중국학연구회) 23집(2002. 12) ▶ 신자유주의적 정책변화의 결정요인: ‘탐색적’ 고찰, 『한국정책과학학보』(한국정책과학학회) 제6권 제1호(2002. 4) ▶ 중국에 ‘지역주의’는 있는가?, 계간 『전통과 현대』제19집(2002. 3) ▶ 湖南 人脈의 어제와 오늘, 『중국연구』(대륙연구소) 6집(1994.6), ▶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의 움직임과 90년대의 전망, 월간 『민족지평』(민족지평사) 5집(1990. 6), ▶ 중국의 권력구조와 개혁·개방 정책의 영향, 『경제기획원공모복합연구과제』(경제기획원)(1989. 6) ■ 국내대학학술지 게재논문 ▶ 탈냉전 시기 중국의 외교 전략, 『公正』(건국대대학원 정치학과) 제11집(1998. 12) ▶ 청말 민중주의 운동에서의 군중의 역할, 『公正』(건국대대학원 정치학과), 제6집(1993. 12) ▶ 문화혁명과 권력투쟁, 『中國研究』(건국대중국문제연구소) 12집(1993. 12) ▶ 중국의 파벌 투쟁 과정에서 나타난 인민 군중운동의 단계와 방법, 『中國研究』(건국대중국문제연구소), 18집(1989. 12) ▶ 고려 노예의 免贖에 관한 연구, 『건국대대학원논문집』(건국대대학원), 12집(1989. 6) ▶ 청조 光緒·宣統期(1894-1911)의 정치적 근대화에 관한 一考, 『公正』(건국대대학원 정치학과) 1집(1988. 12) ▶ 上古 시대 노예의 존재형태, 『政法論叢』(건국대정법대학) 16집(1981. 12) ▶ 고려 노예의 충원에 관한 연구, 『건국대대학원논문집』(건국대대학원), 13집(1981. 6) ▶ 고려 노예의 역할, 『建大學報』(건대신문사), 34집(1981. 12) ▶ 姜鵬山的 정치사상 연구, 『建大學報』(건대신문사), 31집(1978. 1) ■ 국외학회지 게재논문 ▶ 民進·政權下の兩岸關係與展望, 『北方論叢』(北方論叢編輯部), 2001년 11월號 ■ 저서 ▶ 한국의 정치와 행정, 전예원, 2000. ▶ 중국의 정치동원, 집문당, 1996. ▶ 중국의 정치적 현대화, 평민사, 1991. ▶ 현대중국론, 회성출판사, 1989.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집중인터뷰 포천시의회 김중천 의원

“정책자문위원회 쓴소리가 더욱 중요”

포천시 행정, 인허가可否 분명히 해야



김중천 시의원은 포천시 대형 현안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접하는 작은 일에 있어 큰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의원들이 “각종 행사장에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원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곳저곳을 찾아다녀야 한다”

순한 인사 차원이 아니라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경륜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일례로 장기관에서 장기를 두는 사람보다 훈수를 두는 사람이 더 정확할 수 있다. 원료들의 조연을 시정에 접목할 수 있다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또 원료들의 자문과 조연을 정책적으로 청취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필요도 있다.

면서 “일부 주민들이 행사장에 나오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지만 크고 작은 민원을 처리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천시 정책자문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은 잘 한다지만 말할 게 아니라 쓴소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자문위원들은 시의 눈치만 보지 말고 정말 필요한 자문을 해 줘야 한다. 좀더 강한 쓴소리로 자문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눈치만 보고 잘한다고 하면 지도자의 눈과 귀를 멀게 할 수 있다.

김중천 시의원은 “포천사회의 배타성은 크게 완화되었지만 다른 사람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면서 “공무원들이 인허가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허가 혹은 불허가를 분명히 하지 않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했다.

▶포천사회의 갈등원인과 해소방안은 국회의원과 시장은 각자 할 일이 따로 있다. 그러나 일원화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잘 협의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현실적인 이야기는 들린다. 포천시가 민간항공 유치에 하려고 하는데 국회의원이 국방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국회의원과 시장이 협력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 국회의원과 시장의 역할은 다르지만 잘 협의하면 지역현안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다. 지역의 대형사업 추진하는데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려면 국회의원은 중앙정부에 강하게 요구해야 하고 시장은 국회의원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조심스럽지만 두사람이 끌어주고 당겨주고 하면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정치적인 문제는 나중에 문제로 하고 지역의 현안문제를 함께 해결했으면 한다.

다음은 김중천 시의원과 일본인담이다.

▶포천지역의 현안문제와 해결방안은 포천시의 첫 번째 현안문제는 교통문제다. 포천시 관계자들이 시장의 의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중앙부처나 경기도 찾아가 매달려야 한다. 동일한 조건이라면 기다리는 곳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곳에 예산을 배정하게 되어 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예산타령만 해서는 안 된다. 예산이 없어 못 할 바에야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지 말아야 한다. 집행부 차원에서 실현가능성이 있는 사업들을 발표해야 한다. 또 발표할 때는 사업기간, 예산, 어려운 부분 등을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 희망만 주면 나중에 실망이 더 커지게 마련이다. 도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본다. 빚이 없어야 한다는 근본적인 취지는 좋다.

▶포천지역 사회의 특징은 포천시와 같은 작은 도시에서는 공직사회가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공무원들의 역할에 따라서 지역사회가 크게 변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한다. 포천 공직사회는 권위적이고 불친절하다는 말이 많다. 오너의 뜻에 따라 공무원의 권위와 불친절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전국에서 가장 친절할 수도 있다. 시정질문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포천시가 전국 최고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포천시는 기업하기가 힘들다는 말이 많다. 특히 인허가 문제는 더욱 그렇다. 공무원들이 민원인에게 뭔가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된다’라는 말부터 하는 것이다. 물론 브로커들이 중간에 끼어 드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성실한 민원들에게까지 불친절하기 때문에 포천에서 기업을 하려는 사람이 인건 시군으로 옮겨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인허가 문제에 관해서는 공무원들이 몸을 사린다. 허가가 안될 때는 미안한 마음으로 분명히 말해줘야 한다. 공무원들의 불친절과 권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벤치마킹이나 연수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포천사회의 배타성에 대해 정치적인 측면에서 지역사회 배타성은 크게 완화되었고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과거에는 포천초중고를 나와야 행세를 한다는 말이 많았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다.

그러나 순수한 자본만 가지고 일한다는 것은 좋지 못하다. 정말 시급한 문제는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 송우-무봉간 도로의 경우 17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지만 29억원만 확보된 상태다. 현재 토지보상이 30%가 진행된 상태에서 올해 5억이 책정되어 있다. 140억원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사업이 장기화될 경우 토지가격이 상승되고 보상은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다. 보상비 상승에 교통난 가중 등을 고려한다면 지방채를 발행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오히려 이익이 된다.

▶포천지역의 구심점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지역정치인들은 설날이나 혹은 추석때 지역원으로 집에 인사를 간다. 이때만 인사를 할 게 아니라 평소 찾아 조연을 구할 필요가 있다. 지역원로들이 가지고 있는 경륜과 노하우를 받아들여야 한다. 단

두 번째는 교육과 노인복지 문제다. 문서상 혹은 기록상의 문제가 아니라 피부에 와 닿는 교육도시가 되도록 해야 한다. 외고나 특목고 등을 유치하는 것보다 기존 학교가 명문학교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인재육성 지원책을 찾아야 한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역발전이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모색이 필요하다.

하승환 기자 form65@paran.com

傳統과 國際化가 조화를 이룬 도시라는 사실을 널리 알려야

15분의 기적

20대 피부로 돌아간다!

팔자라인 더이상 고민 끝!!
단 한번의 마사지로 요요현상 없는 완벽한 리프팅 효과

S-Body Diet
(에스-비디 다이어트)

체지방이 줄어드는 S-Body Diet (에스-비디 다이어트)

HERBAL HEALER Maurice Messegue
무어족의 허브 문화유산이 유구히 내려오는 남프랑스 지방의 가스코니(Gascony)에서 450년 이상을 살아온 집안에서 1921년 12월 14일 출생한 모리스 메세그는 니스 다리미에서 만성성진으로 온몸이 추악하게 변한 거지 Schoum의 승진을 맡으며 치유해 주고 그를 돌보던 수녀들의 신령통까지도 완전히 치유함으로써 명성을 얻게 됨

—약 220명의 현직 의사들로부터의 감사장과 증언
—약 20,000명의 환자들로부터의 감사장과 증언

Atma
TOTAL BEAUTY CENTER

(주)아트마(경기북부지사)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4리 388-1
Tel. 031. 541-0220
080-208-2080